



동향분석실 | 도원빈 수석연구원, 02-6000-5848, wonbin.doh@kita.or.kr
김우중 연구위원, 02-6000-5032, wj.kim@kita.or.kr
김진아 연구조원, 02-6000-5049, itanalysis@kita.or.kr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중국 내 생산 증가와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5월 중국 내 산업 재고 수준이 사상 최고치인 16.7조 위안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저가 수출을 통해 과잉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데, 2023년 10월 중국 수출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9.7%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달러 기준 단가로도 2023년 8월 13.9% 하락해 마찬가지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수출물량은 금년 1~4월 중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해 단가 인하를 통한 수출 밀어내기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리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산발 해상운임의 종합지표인 한국 컨테이너선 운임지수(KCCI)는 2023년 평균 1,359에서 올해 7월 1일 4,778까지 3.5배 상승했다. 반도체, 컴퓨터 등 IT제품을 제외하면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여 우리 수출기업 대부분은 운임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채산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안화 약세와 주요국 대비 낮은 생산자물가가 요인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국의 對중국 견제 조치에서 기회요인을 탐색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 전환이 필요하다.

1. 중국 저가 수출 배경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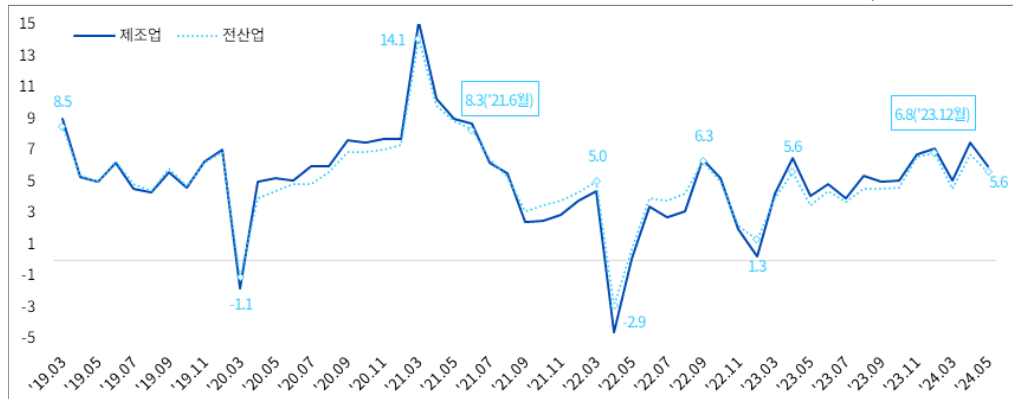
▶ 중국의 산업생산은 2023년 하반기부터 6% 내외의 완만한 증가세 지속

- 2023년 12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면서 2021년 6월(8.3%)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특히 최근 13개월 연속 제조업 생산량 증가가 전산업 증가를 상회하면서 중국 내 공급 증가를 주도

* '24년 5월 중국 3대 산업의 부문별 생산량 증가율(전년동월비 %):
(전산업) 5.6 (제조업) 6.0 (전기·가스·수도) 4.3 (채광) 3.6

중국 산업생산량 증가율

(전년동월비 %)



주 : 1,2월 수치는 미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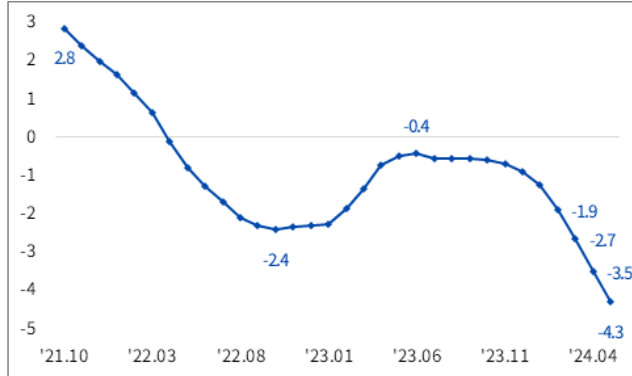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중국 국가통계국

▶ 부동산 위기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재고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

- 중국 신규 주택가격은 2022년 4월부터 26개월 연속 감소세, 소비자의 경제 상황 인식을 반영하는 소비자신뢰지수도 동일 시점부터 100 미만 상태 지속

중국 신규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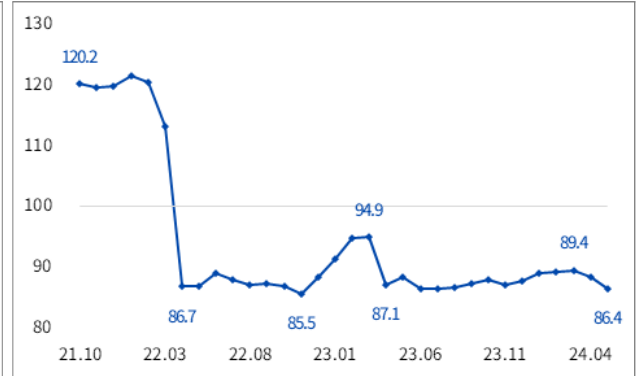
(전년동월비 %)



주 : 중국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의 평균
자료 : Bloomberg,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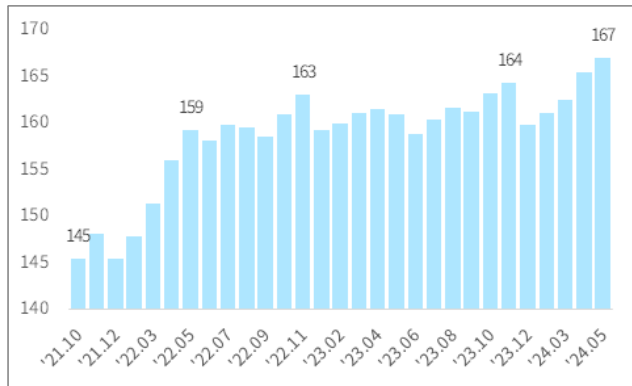


주 : 100 이상은 긍정적, 100 미만은 부정적 평가를 의미
자료 : CEIC,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내에서 생산 증가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2024년 5월 중국 산업 재고는 16.7조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재고 비중이 96.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제조업종 중에서는 통신·컴퓨터, 전자기기 등의 재고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중국 산업 재고 추이

(천억 위안, 전년동월비 %)



주 : 1월 수치는 미발표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부문별 산업 재고

(천억 위안, %)

구분	2023년 2~12월		2024년 2~5월	
	재고	비중	재고	비중
제조업	1,706	96.3	632	96.4
통신·컴퓨터	222	12.5	83	12.6
전자기기	146	8.3	53	8.1
특수기계	113	6.4	43	6.5
일반기계	108	6.1	40	6.1
제조업 외	66	3.7	24	3.6
전산업	1,772	100.0	656	100.0

주 : 1월 수치는 미발표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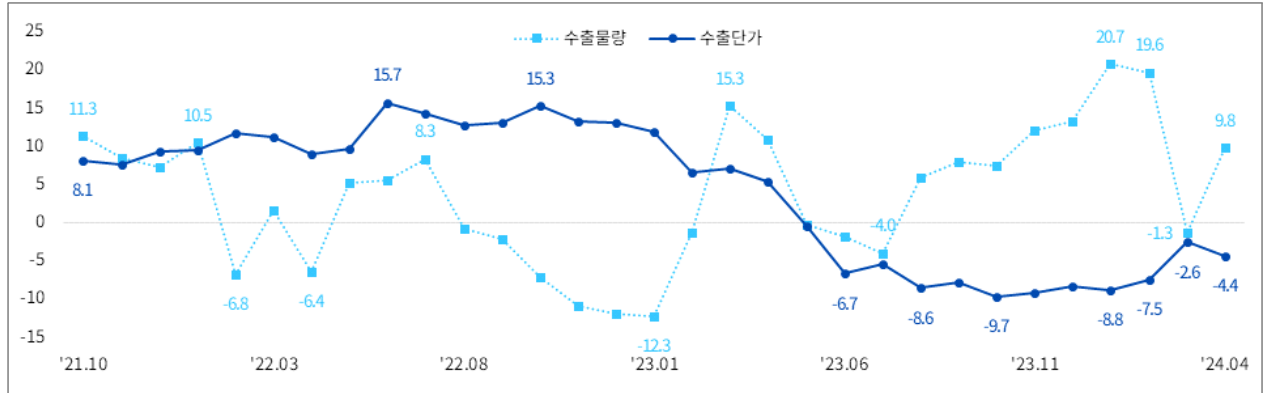
▶ 중국의 수출단가 인하와 물량 확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

- 중국 수출단가는 2023년 5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
- 지난해 10월 수출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9.7% 하락하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최저치 기록
- 반면 수출물량은 올해 초 20% 가까이 증가하며, 코로나19 기저효과에 따라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했던 202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 시현

* 코로나19 직후 중국 수출물량 증가율(전년동월비 %) : ('21.2월)144.6 (3월)22.8 (4월)25.0 (5월)18.5

중국 수출물량·단가 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비 %)



자료 : Bloomberg, 중국 해관총서

▶ 품목별로는 철강, 비료 등 화학제품의 수출 단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운송기기(자동차 등)와 곡물·채소류를 중심으로 수출물량 확대가 활발하게 나타남

- 2024년 1~4월 철강 수출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9.4% 하락하면서 전품목 하락률(-5.8%)을 크게 하회하였고, 비료를 포함한 화학제품(-14.4%) 수출단가도 크게 하락
- 동기간 운송기기 수출물량은 30.2% 상승하면서 중국의 수출물량 확대를 주도했으며, 곡물(21.6%)과 채소류(16.9%) 수출 물량도 증가하는 추세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물량·단가 증가율

(전년동월비 % 평균)

구분	수출물량				수출단가			
	'22	'23.상	'23.하	'24.1~4	'22	'23.상	'23.하	'24.1~4
동물·동물성 생산품	3.2	-2.7	-6.5	5.2	9.2	2.6	-5.2	-9.2
채소류	0.3	5.6	9.3	16.9	4.0	4.3	-0.8	-4.6
곡물	0.2	-17.6	-10.1	21.6	11.6	27.8	32.8	3.2
음식료품	22.9	15.1	14.1	6.7	8.6	2.3	-4.9	-7.1
화학제품	1.9	-3.5	1.5	7.1	18.5	-10.4	-16.8	-14.4
유기화학품	13.1	-7.1	-2.7	14.2	14.4	-12.6	-14.0	-12.4
의약품	-59.2	-9.5	-0.6	10.8	-0.8	-3.6	-10.1	-1.9
비료	-19.0	41.9	20.1	-27.3	48.1	-18.1	-33.3	-18.3
고무·플라스틱	0.6	3.1	16.3	17.7	11.0	1.3	-12.2	-5.7
가죽·모피	13.8	7.9	6.1	15.5	11.0	16.5	-8.9	-4.5
섬유제품	1.0	-2.8	4.1	11.9	7.7	4.1	-6.3	-3.6
금속제품	3.5	3.2	9.2	14.5	15.0	0.9	-14.5	-11.0
철강	6.0	23.3	23.5	15.1	14.6	-8.2	-22.7	-19.4
구리	0.3	-2.0	12.0	-3.4	5.7	-3.5	0.4	-0.7
알루미늄	6.3	-11.2	0.6	12.0	18.8	-3.2	-7.4	-2.7
운송기기	8.3	29.4	20.7	30.2	10.0	11.1	0.2	-3.7
전품목	-1.3	1.8	7.1	12.2	12.4	3.9	-8.2	-5.8

주 : 기간 월별 증가율의 평균 기준, 음영은 2024년 1~4월 기준 상위·하위 3개 품목

자료 : Bloomberg,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의 부문별 경제성장에서 내수(소비·투자)의 기여율은 축소된 반면, 수출기여율은 크게 증가

- 지난해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23년 1분기 106.2%에서 2024년 1분기 85.5%로 축소
- 반면 순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율은 동기간 -6.2%에서 14.5%로 플러스 전환되면서 최근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

중국 경제성장률 및 요인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구분	'23.Q1	'23.Q2	'23.Q3	'23.Q4	'24.Q1
실질 GDP (100억 위안)	2,690	2,866	3,035	3,320	2,831
GDP 증가율 (전년동기비 %)	4.5	6.3	4.9	5.2	5.3
└ 소비 기여율(%)	67.2	85.3	94.4	80.0	73.7
└ 총자본형성 기여율(%)	39.0	31.3	25.4	23.1	11.8
└ 순수출 기여율(%)	-6.2	-16.6	-19.8	-3.1	14.5

주 : GDP는 2020년을 기준으로 실질화

자료 : Bloomberg,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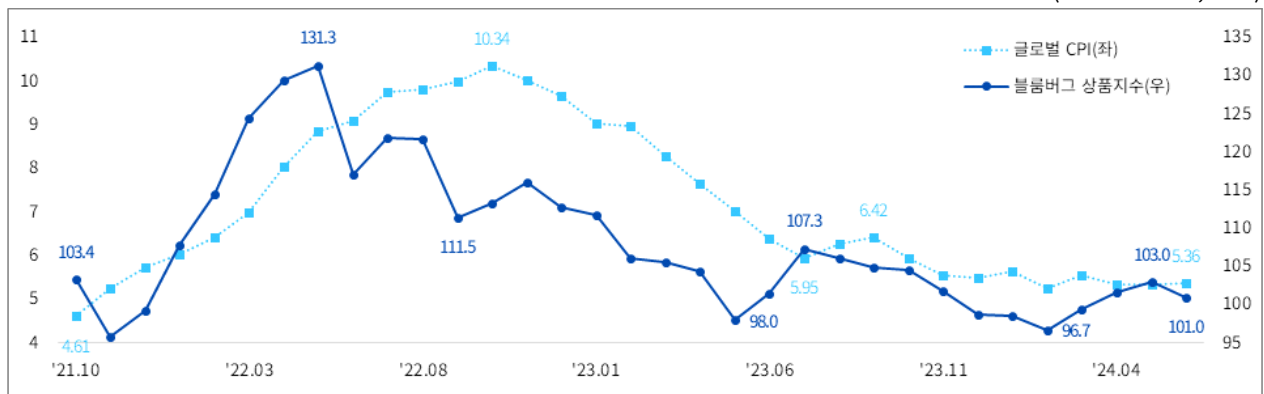
▶ 최근 인플레 둔화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많은 국가의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수출단가 하락폭은 주요국에 비해서 더 큰 편임

-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2022년 최고 10.34%에서 최근 5% 내외로, 블룸버그 상품지수*는 131.3 → 100 내외로 하락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화 단계

* 블룸버그 상품지수는 원유, 천연가스, 철강, 비철금속, 곡물 등 24개 원자재 가격을 종합한 지수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동향

(전년동월비 %, 지수)



주 : 글로벌 CPI는 각국 CPI를 경제규모(GDP) 기반으로 가중평균한 값

자료 : Bloomberg

- 세계적인 물가 하락세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수출단가 감소폭은 주요국 대비 큰 수준
- 2023년 8월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9% 하락하면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고, 202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

- 2024년 1~4월 중국 수출단가는 달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2% 하락하면서 주요 지역 중 하락폭이 가장 컸으나, 동기간 수출물량은 8.7%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2위를 차지하였음(CPB)
- 1~4월 우리나라 수출물가 증가율은 달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에 그쳐, 중국산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악화가 우려(한국은행)

* 2024년 1~4월 한국의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국은행)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수출물량·단가 증가율

(전년동기비 %)

구분	수출물량			수출단가		
	'23.상	'23.하	'24.1~4월	'23.상	'23.하	'24.1~4월
세계	-0.5	-1.0	1.7	-4.0	-4.1	-2.6
선진국	-0.9	-2.2	0.6	-1.4	-0.3	-1.4
유로존	-1.3	-4.6	-2.2	3.1	4.2	-0.3
미국	4.5	1.9	2.7	-5.5	-5.2	-1.7
영국	3.8	-17.1	-7.7	-1.8	4.8	2.9
일본	-2.0	-0.6	-0.4	-4.1	-1.1	-4.3
일본 외 아시아 선진국	-7.5	1.3	8.9	-5.9	-3.0	1.2
기타 선진국	1.8	-1.2	-0.6	-3.9	-3.4	-3.7
신흥국	0.4	1.2	3.5	-8.4	-10.4	-4.8
중국	0.7	5.1	8.7	-3.7	-11.4	-10.2
중국 외 아시아 신흥국	-3.6	-4.7	0.9	-5.2	0.3	2.3
동유럽·CIS	6.3	17.1	6.7	-30.9	-32.6	-8.9
라틴아메리카	0.4	-2.8	-0.8	-1.3	1.7	2.0
아프리카·중동	1.5	-4.8	-4.1	-20.0	-23.4	-5.8

주 : 주요국 간 비교를 위해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 자료를 사용했으며,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검색일: 202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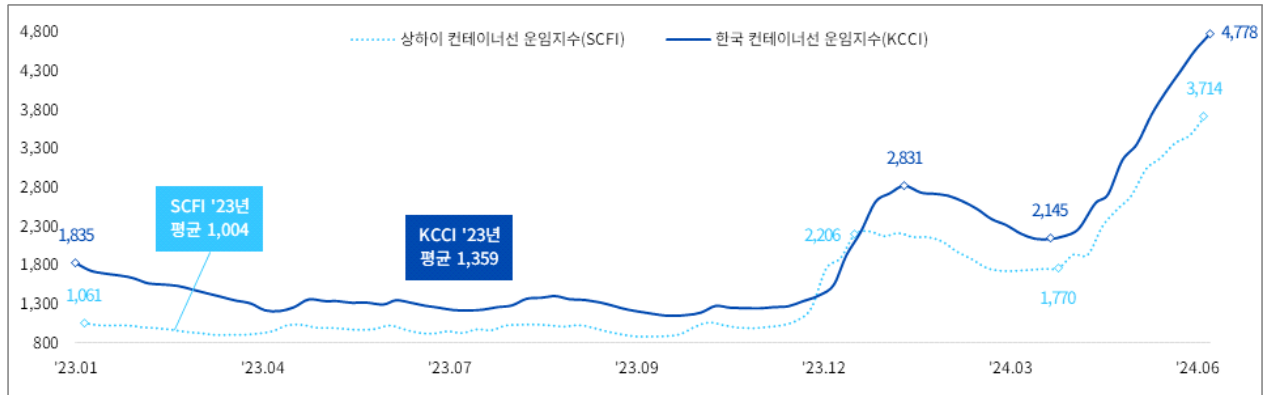
2.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 상승 및 선박 확보 어려움이 발생

- 가뭄에 따른 파나마 운하 통행 차질, 예멘 후티 반군 홍해 사태 등으로 해상운임 상승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 상승이 가속화
 - 한국 컨테이너선 운임지수(KCCI)*는 지난해 평균 1,359에서 올해 7월 1일 4,778로 3.5배 상승하였고,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는 동기간 3.7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우리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
- * KCCI는 부산발 13개 개별 항로의 운임을, SCFI는 상하이발 15개 개별 항로의 운임을 가중평균한 지수임
- 반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여타지역 간 해상운임은 오히려 하락해 최근 물류비 상승이 중국과 인근 지역 물량 확대에 기인함을 시사
 - 뉴욕 → 로테르담 해상운임은 2023년 평균 40피트 컨테이너당 851달러에서 6월 28일 기준 656달러까지 22.9% 하락하였고, 로테르담 → 뉴욕 해상운임은 동기간 37.5% 하락

부산·상하이발 해상운임 추이

(지수)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Bloomberg, Shanghai Shipping Exchange

뉴욕·로테르담 간 해상운임 추이

(달러/FEU)



자료 : Bloomberg, Drewry

- 주요 해외 선사들이 중국에서 물량을 대부분 채우면서 선복 확보 자체도 어려워진 상황
 - 특히 장기 계약이 많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현물 계약이 많아 선복 확보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큼
- ▶ 항로별로는 북유럽 지역으로의 운임이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선복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
 - 부산발 항로 중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인근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 해상운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가운데, 특히 로테르담·함부르크 등 북유럽 운임이 가장 크게 상승
 - * 부산발 항로별 해상운임 증가율('23년 평균 → '24.6월, %): (북유럽)348.9 (美서안)289.8 (중남미 동안)248.5
 - 상하이발 항로 중에서도 로테르담행 항로의 해상운임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 한국과 중국 간 선복 확보 경쟁이 심화
 - * 상하이발 항로별 해상운임 증가율('23년 평균 → '24.6월, %): (로테르담)375.5 (제노아)245.7 (美서안)233.6

주요 목적지별 한·중 해상운임 추이

(달러/FEU, %)

구분	항로 상세	2023년 (a)	2024년						증가율 (a→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b)	
북미 서안	부산→LA, 롱비치 등	1,597	3,083	4,765	4,120	3,328	4,530	6,226	289.8
	상하이→LA	1,994	3,854	4,674	3,963	3,472	5,021	6,653	233.6
북미 동안	부산→뉴욕, 사바나 등	2,605	4,462	6,103	5,501	4,273	5,601	7,367	182.8
	상하이→뉴욕	2,900	5,531	6,059	5,239	4,479	6,264	7,959	174.5
북유럽	부산→로테르담, 함부르크 등	1,423	4,223	4,626	3,861	3,382	4,457	6,389	348.9
	상하이→로테르담	1,494	4,751	4,220	3,314	3,050	4,836	7,106	375.5
지중해	부산→캘리포니아, 제노아 등	2,309	4,884	5,442	4,535	3,945	4,823	6,676	189.1
	상하이→제노아	2,066	5,927	5,049	3,995	3,635	5,384	7,142	245.7
기타	부산→중동	1,762	2,341	3,004	2,938	2,877	3,186	3,900	121.3
	부산→오세아니아	1,039	1,927	2,229	2,001	1,648	1,850	2,490	139.7
	부산→중남미 동안	2,291	3,144	3,040	2,968	3,576	5,839	7,986	248.5
	부산→중남미 서안	2,130	2,264	2,225	2,468	2,901	4,596	6,554	207.7
	부산→남아프리카	2,216	2,001	2,098	2,154	2,191	3,276	6,687	201.7
	부산→서아프리카	2,511	2,063	2,134	2,143	2,210	3,906	7,973	217.5
	부산→중국	122	31	32	38	38	43	46	-62.6
	부산→일본	426	185	185	184	186	204	225	-47.3
	부산→동남아	610	326	367	418	477	563	797	30.6

주 : 기간평균 기준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Bloomberg, Drew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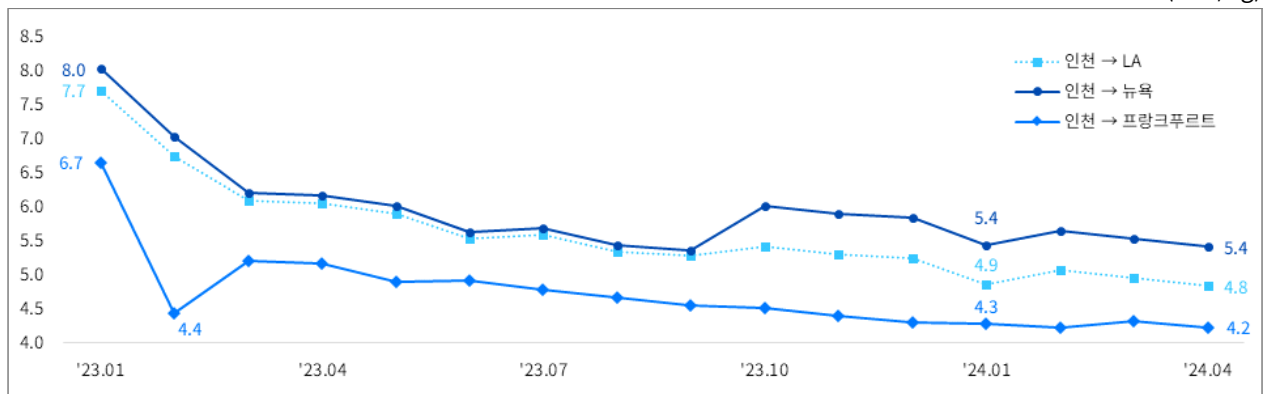
▶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

- 2023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98.4%), 컴퓨터(90.4%), 무선통신기기(87.8%) 등 무게가 가볍고 단가가 높은 품목은 항공운송 비중이 높아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

- 인천발 미국·유럽항 항공운임은 2023년 초 대비 하락하는 추세

주요 노선별 항공운임 추이

(달러/kg)



주 : 100kg 화물 단가 기준

자료 : 한국관세물류협회

- 반면 5대 IT 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저가 수출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음

- 특히 석유제품(100.0%), 자동차(99.9%), 석유화학(99.5%) 등은 중량이 무거워 항공 운송 전환 등 대체수단 확보가 어려움

주요 수출품목의 운송수단별 수출비중(2023년)

(천만 달러, %)

구분	수출액			수출비중	
	해상	항공	총수출	해상	항공
전품목	44,859	18,349	63,223	71.0	29.0
5대 IT품목 제외	42,990	5,412	48,415	88.8	11.2
석유제품	5,200	0	5,200	100.0	0.0
자동차	7,080	6	7,086	99.9	0.1
선박류	2,169	10	2,179	99.5	0.5
석유화학	4,548	21	4,570	99.5	0.5
철강	3,466	54	3,519	98.5	1.5
자동차부품	2,206	89	2,295	96.1	3.9
일반기계	4,724	618	5,343	88.4	11.6
섬유류	938	152	1,092	85.9	13.9
5대 IT품목 합계	1,869	12,937	14,808	12.6	87.4
가전	667	127	794	83.9	16.0
평판디스플레이	785	1,073	1,859	42.3	57.7
무선통신기기	189	1,357	1,547	12.2	87.8
컴퓨터	70	675	745	9.4	90.6
반도체	158	9,705	9,863	1.6	98.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미국, EU 등 주요국의 對중국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 가능성

-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미국은 지난 5월 약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주요 전략 품목에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변국들도 對중국 견제에 동참 움직임
 - EU,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중남미, 인도, 동남아 등 신흥국들도 중국산 철강, 전기차 등 과도한 유입을 우려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조사에 착수
- 주요국의 對중국 관세 인상은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보고서¹⁾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관세 1% 인상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약 1.46% 감소시키고, 중국 외 국가의 대미 수출을 최대 0.46% 증가시킴
 - 지난 5월 미국이 발표한 301조 관세 인상안이 적용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55.6억 달러 감소하고 한국의 대미 수출은 4.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

1) Lovely, Xu, and Zhang(2021.07.), Collateral Benefits? South Korea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US-China Trade War,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주요국 對중국 관세장벽 조치

국가	시기	주요 내용
멕시코	'23.7	· 중국산 겨냥 일부 철강 수입품에 대해 최대 79.6%의 관세 부과 발표
인도	'23.9	·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EU	'23.10	· 중국산 전기자동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 상계관세 결정 예정('24.7 잠정) · 중국산 주석도금 강판(tinplate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브라질	'24.4 '24.5	· 철강제품 11종에 대한 수입 쿼터제 조치 계획 발표 - 쿼터 초과시, 초과 수입물량에 대해 25%의 수입관세 일괄 적용 · 중국산 냉간압연강(cold rolling steel) 2종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칠레	'24.4	· 중국산 철강 제품 2종에 대해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미국	'24.5	· 전기자동차(25→100%), 철강 및 알루미늄(0-7.5→25%), 반도체(25→50%) 등 301조 관세 인상안 발표
튀르키예	'24.6	·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베트남	'24.6	·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캐나다	'24.6	·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 시행 결정 (7/2 시행)

자료 : 국가별 정책 발표 자료 및 언론보도 종합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영향 추정

(백만 달러, 전년비 %)

구분	관세 인상	중국 대미수출		한국 대미수출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반도체	25% → 50%	-491	-26.6	13.5	0.6
배터리	7.5% → 25%	-2,911	-22.0	8.6	0.6
배터리부품	7.5% → 25%	-2	-22.0	0.05	0.6
전기차	25% → 100%	-283	-68.6	414	4.4
철강·알루미늄	0% → 25%	-1,093	-32.6	11.8	0.4
흑연·영구자석	0% → 25%	-230	-32.6	0.1	0.3
의료제품	7.5% → 25%	-492	-22.0	0.4	0.1
태양전지	25% → 50%	-53	-26.6	6.9	0.5
항만 크레인	0% → 25%	-0.6	-32.6	0.01	0.4
합계		-5,556	-25.3	456	2.6

주 : 2023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변동치를 추정, 각국 수출은 미국의 해당국 수입액으로 계산

자료 : 피터슨경제연구소 보고서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Lovely, Xu, and Zhang(2021.07.), Collateral Benefits? South Korea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US-China Trade War,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다만 중국이 미국 등 관세 장벽을 피해 제3국으로 수출을 전환할 경우, 제3국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 심화 가능성도 상존

- 2024년 1~5월 기준 중국의 베트남,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으로의 수출이 우리나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상승하였음
-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등 일부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도 우리나라는 올해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점유율 격차가 확대
- 반면,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등 주요 우방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이 우리나라 대비 부진한 양상

2024년 1~5월 중국 수출 상위 국가

(천만 달러, 전년동기비 %)

국가	한국 수출			중국 수출		
	'23.1~5	'24.1~5	증가율	'23.1~5	'24.1~5	증가율
카자흐스탄	82	83	0.8	869	1,126	29.5
브라질	185	224	21.2	2,279	2,851	25.1
이라크	50	58	15.2	582	680	16.9
베트남	2,051	2,291	11.7	5,672	6,504	14.7
사우디아라비아	223	222	-0.4	1,819	1,966	8.0
인도네시아	394	313	-20.6	2,715	2,872	5.8
태국	332	317	-4.6	3,301	3,448	4.5
폴란드	380	313	-17.7	1,558	1,571	0.8
프랑스	231	194	-15.7	1,726	1,728	0.1
이탈리아	228	208	-8.7	1,911	1,911	0.0
스페인	150	145	-2.8	1,659	1,630	-1.8
러시아	305	210	-31.2	4,297	4,184	-2.6
방글라데시	84	54	-35.9	1,073	1,009	-6.0
벨기에	264	183	-30.5	1,531	1,362	-11.0
남아프리카 공화국	43	29	-31.9	1,062	825	-22.4
합계	12,340	14,587	18.2	76,244	74,858	-1.8

주 : 중국 수출 상위국 중 중국의 2024년 1~5월 수출금액 기준 상위 15개국을 증가율 순으로 정렬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4년 1~5월 한국 수출 상위 국가

(천만 달러, 전년동기비 %)

국가	한국 수출			중국 수출		
	'23.1~5	'24.1~5	증가율	'23.1~5	'24.1~5	증가율
멕시코	492	570	15.9	3,262	3,592	10.1
대만	737	990	34.3	2,702	2,932	8.5
홍콩	784	1,500	91.3	10,476	11,317	8.0
말레이시아	369	422	14.4	3,766	3,961	5.2
인도네시아	721	777	7.9	4,737	4,707	-0.6
캐나다	348	446	28.1	1,832	1,820	-0.7
미국	4,547	5,328	17.2	20,073	19,596	-2.4
영국	269	295	9.5	3,115	3,039	-2.5
싱가포르	708	798	12.7	3,492	3,384	-3.1
독일	414	423	2.1	4,323	4,154	-3.9
튀르키예	398	419	5.1	1,764	1,625	-7.9
일본	1,168	1,211	3.7	6,715	6,156	-8.3
호주	699	700	0.0	3,140	2,809	-10.6
필리핀	384	411	6.9	2,456	2,164	-11.9
네덜란드	300	296	-1.3	4,390	3,602	-18.0
합계	5,000	4,844	-3.1	32,054	33,665	5.0

주 : 한국 수출 상위국 중 한국의 2024년 1~5월 수출금액 기준 상위 15개국을 증가율 순으로 정렬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의 저가 수출은 안정된 수출 채산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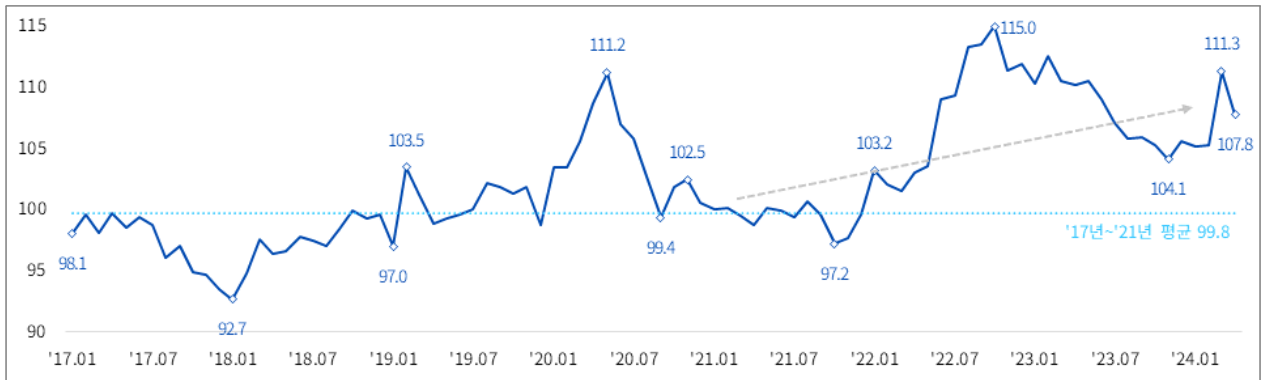
- 최근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채산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
- 일반적으로 수출 단가가 하락하면 수출 채산성은 악화되나,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 물가 영향으로 최근 중국의 수출채산성지수*는 2017~2021년 평균치(99.8)를 상회

* 수출채산성지수 = (환율지수*수출단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 수출채산성지수 산식에서 분자에 속하는 '수출단가'는 '23년 평균 대비 '24년 4월 4.2% 하락, '환율지수'는 2.1% 상승, 분모인 '생산자물가지수'는 1.7% 감소

중국 수출채산성 추이

(지수, 2021.1월=100)



주 : 수출채산성지수 = (환율지수*수출단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자료 : Bloomberg, 중국 국가통계국, CP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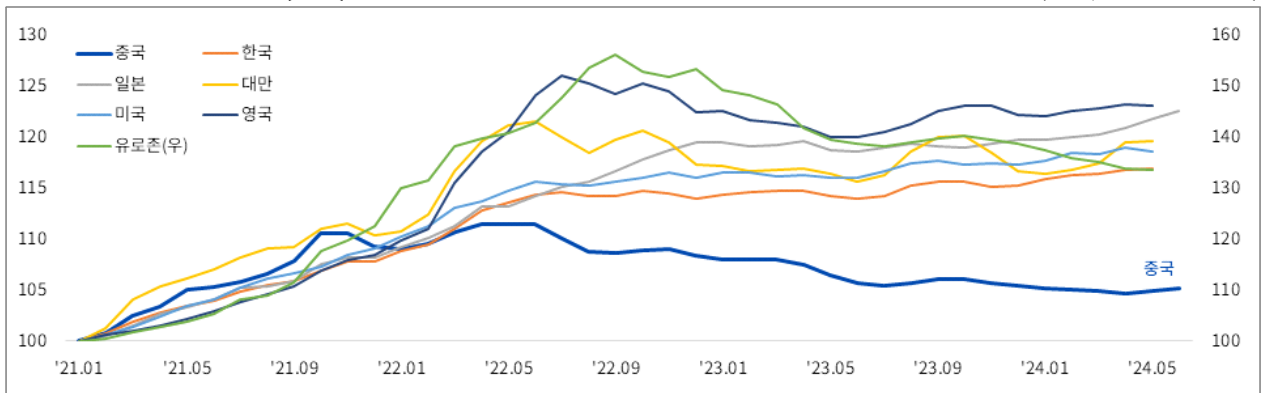
- 특히 한국, 미국, 유로존, 일본 등에 비해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낮아,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저가수출 공세를 펼치기에 용이

* '24.5월 주요국 생산자물가지수('21.1월=100 기준) : (유로존)133.6 (영국)123.1 (일본)121.8 (대만)119.6 (미국)118.7 (한국)117.0 (중국)104.9

* 중국의 생산자물가 증가율(전년동월비)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

주요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추이

(지수, 2021.1월=100)



주 : 주요국 생산자물가지수를 2021년 1월 = 100 기준으로 평준화

자료 : Bloomberg

- 위안화 약세 및 낮은 생산자물가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중국 기업들은 저가 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큼

-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완만한 속도로 기준환율을 상향 고시하며 위안화 약세를 용인²⁾

* 위안/달러 환율(기간평균, Bloomberg) : ('21) 6.445 → ('22) 6.753 → ('23) 7.091 → ('24.1~6) 7.222

▶ 풍부한 광물 자원 및 원자재 가공을 활용한 수직계열화와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는 이어질 것

- 중국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재료·부품 등 공급망을 내재화하여 원료조달, 비용 및 시간 절감, 품질 관리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

- 전기차·이차전지의 경우 중국 기업은 원료부터 셀 제조, 전기차 제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주기 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하여 단기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음

* 중국의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SNE리서치, %) : ('21) 23.9 → ('22) 31.0 → ('23) 33.3 → ('24.1~5) 34.8

* 중국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SNE리서치, %) : ('21) 44.4 → ('22) 53.7 → ('23) 57.3 → ('24.1~5) 57.8

[참고] CATL의 업스트림 수직계열화 현황

핵심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동	인광석	흑연
테이리튬(25%) North American Lithium(43.59%) 스웨덴광업(100%) 볼리비아 염호개발(66%) 장시성 광산개발(100%) 등	North American Nickel(25.38%) Lantian금속(75%) NewStride Tech(19%) PT.QMB New Energy(10%)	CMOC Group(24.68%) 팅위안코발트(0.8%)	방푸이화(65%) 구이저우 광산개발(100%)	Pride Power(25%)

소재·부품·장비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장비
BRUNP(64.8%) QuijingLintie(43.59%) 후난위닝(10.54%) 장시성화(8.24%)	Shang Tai Tech(2.22%) 핑난스다이(100%) Shinzoom(35%) KAIJIN(3.51%)	CATL-SICONG(66%)	Xiamen SEMCORP(49%)	지아위안 스다이(20%)	CNTE(20%) 센다오 즈닝(7.5%) MENTECS(19.71%) 안마이스다이(49%)

주 : () 안은 CATL이 보유한 지분 비율

자료 : 최재희(2023.4.27.), 중국 LFP 배터리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력 향상은 우리 수출에 근본적인 위협 요인

- 최근 중국의 수출자립도가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의 자립도 향상이 두드러짐

- 수출자립도 증가는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기술력과 중국 내 소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있음을 의미

- 범용 기술 분야와 AI·우주·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따라잡았거나 추월한 것으로 평가

2) 조은, 이상원(2024.6.26.),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점검, 국제금융센터

- 중국의 기술 고도화로 해외 시장에서 주요 수출 품목들의 한·중 경합도가 심화되는 추세

- 한국과 중국의 對아세안(ASEAN)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중 경쟁하는 품목의 수는 2018년 32개에서 지난해 40개로 증가(자동차, 선박, SSD 등이 신규 경합 품목으로 부상)³⁾

중국의 산업별 수출자립도

품목	'20년 (a)	'22년	'24.1Q (b)	b-a
화학공업제품	-0.013	0.292	0.232	0.245
플라스틱·고무·가죽	0.701	0.767	0.804	0.103
섬유류	0.952	0.959	0.955	0.003
생활용품	0.982	0.988	0.989	0.007
철강금속	0.243	0.467	0.474	0.231
자동차	0.605	0.797	0.869	0.264
전기전자	0.498	0.527	0.553	0.055

2022년 ICT 기술수준조사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일본
ICT평균	100	93.8	92.2	90.0	88.6
인공지능	100	92.4	92.5	88.9	86.2
자율주행차	100	98.3	95.4	89.4	89.7
전파·위성	100	94.5	90.0	86.4	89.4
빅데이터	100	87.7	92.9	89.2	79.9

주 : 수출 자립도 = 1-(중간재수입/총수출), 1에 근접할수록 완전 수출 자립을 의미,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기초로 계산
자료 : 김우중 외(2024.6.24.),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주 : 영역별 최고 수준의 국가(100) 대비 상대 수준을 의미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4)

▶ 주요국의 對중국 견제 조치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 전환 노력 시급

- 미국·EU 등 주요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점유율을 늘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협력·시장 선점 노력 필요

- 특히 미국의 경우 대선을 1년여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신규 조사 개시한 반덤핑 46건, 상계관세 26건 중 중국(12건)이 가장 많았고, 이러한 對중국 견제 조치는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⁴⁾

- 중·장기적으로는 제품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프리미엄 중심 新수출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필요

- 가격경쟁력으로 중국을 앞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품질경쟁력 고도화 및 제품 차별화에 집중해야 함

* 중국 바이어 대상 설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한국 제품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한국산 제품이 중국 및 아세안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1%에 이른다⁵⁾

- 우리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가전, 친환경 연료 LNG 선박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중심의 코리아 시그니처(Korea Signature) 제품 라인을 확대해 나가야 함

3) 장상식(2024.6.27.), 중국의 對아세안·멕시코 투자확대에 따른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4) 오세화(2024.4.25.),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5) 전보희, 박소영(2024.4.29.), 중국 바이어가 본 한국 소비제품 경쟁력 및 시사점, 국제무역통상연구원